

모난 마음, 다듬고 싶다면

August 1, 2016 | 함혜리 선임기자



현대차 후원 김수자 '마음의 기하학' 전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에게 대규모 신작을 실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9억원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를 맞은 올해의 주인공은 세계를 무대로 맹활약 중인 현대미술 작가 김수자(59)다.

1990년대 초 '보따리'라는 개념을 물질과 비물질을 감싸는 방법론으로 풀이해 주목을 끌기 시작한 그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로 광주, 이스타빌, 페니스, 리움 등 각종 비엔날레에 잇따라 초대받고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백구비미술관,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프랑스 메조팡피두센터에서 개인전을 갖는 등 해외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김수자는 자아와 타자, 물질과 비물질, 이동성과 부동성 등의 상반된 개념에 집중하는 한편 이민과 망명, 폭력과 정치, 환경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회화, 드로잉, 조각뿐 아니라 소리, 빛, 아날로그 등을 이용한 장소특정적 설치와 퍼포먼스, 비디오, 사진 등의 개념적이고 구조적인 창작 방식으로 동시대 미술을 개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국내 미술관에서 20년 만

영상·설치·퍼포먼스 등 9점 선보이며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테이블 위에 찰흙 엮을 때 작품 완성' 작가 두 팔 조각한 '연역적 오브제'도

에 갖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사운드, 영상, 설치, 퍼포먼스, 조각 등 9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초기 작업부터 지속된 신체와 기하학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보다 공간감 있게 보여 주는 신작들이다.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마음의 기하학'은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작가의 사유가 깔려 있는 작품으로 관람객이 직접 작품에 개인하는 참여형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작가는 캔버스 기능을 겸하는 19m 길이의 타원형 나무 탁자 위에 관람객이 찰흙 덩어리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도록 요청한다. 작가는 "두 손을 마주 비벼 가며 찰흙으로 공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 마음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양손을 미는 힘과 중력이 찰흙에 가해지면서 물질과 비물질의 차원이 교차되는 경험을 관람객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마당에서 작가 김수자가 자신의 작품 '연역적 오브제' 앞에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찰흙을 빚는 동안 테이블 아래 설치된 16개의 스피커에선 32가지의 소리가 흘러 나온다. 이 소리 또한 '구의 껍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테이블 위에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테이블 위에 새롭게 놓이는 찰흙 덩어리들이 만드는 형상을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 작가는 "흙을 만지는 손의 움직임은 결국 보따리나 아날로그를 써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며 "관객이 사운드를 들으며 만든 찰흙 덩어리를 테이블 위에 엮을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마음의 기하학'이 설치된 공간 바로 옆 전시실 벽에는 '몸의 기하학'이 내걸렸다. 2006년부터 작가가 사용했던 요가 매트와 작가의 손과 발이 닿은 흔적들로 이뤄진 작품이다. 영상작품 '실

의 껍적'은 작가가 2010년 이후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 중인 영상작품 시리즈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나바호족과 호피족이 거주지에서 촬영한 첩타를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 1980년대 초 작가가 신체, 평면, 공간의 역학 구조에 대한 실험으로 진행한 퍼포먼스를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한 '몸의 연구', '호흡의 음과 그래픽을 자수로 수놓아 표현한 '숨', '작가의 두 팔을 캐스팅해 테이블에 올려놓은 '연역적 오브제'도 선보인다.

전시마당 한가운데에는 '우주의 알로 알려진 인도 보따리'의 검은 돌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연역적 오브제'가 있다. 보따리의 형태를 보따리로 형상화한 것으로 오방색 띠를 두른 타원형의 오브제가 거울 위에 놓여 있다. 거울 평면은 대각선의 중심에서 타원형 오브제를 지지하는 플랫폼이자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로 기능한다. 전시마당을 둘러싼 유리창에는 특수 필름을 이용한 장소특정적 설치작품 '호흡' 2016년 버전이 설치됐다.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소피아미술관에서 '꺼울어인'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한 후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인 바 있는 작품으로 공간의 허공성을 건축물의 표면으로 확장하고 보따리의 개념을 빛의 언어로 비물질화한 것이다. 전시는 내년 2월 5일까지.

글·사진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